



남원 도동동, 다문화·소외계층 자녀 교육비 지원

남원시 도동동(동장 소선자)과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는 5월부터 다문화 및 소외계층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다문화 및 소외계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및 소외계층 자녀에게 학습·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지원 예정으로 월 4회 도동동 소재 학원에 지원 대상자 아이들이 직접 방문해 국어 또는 수학 교육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원지사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다문화 및 소외계층 자녀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소선자 도동동장은 "교육비 지원 사업이 다문화 및 소외계층 자녀들의 학습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원활한 학교생활에도 좋은 효과가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5월 낭만 통기타 교실 운영

남원 동부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에서는 노년 사회화 교육으로 진행되는 '낭만 통기타' 교실을 오는 5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악기 연주, 댄스, 운동 등의 도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회적 교류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한 음악치료 연구 결과에 따라,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시니어 중 음악을 통한 치유나 치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기타는 휴대하기도 편하고 구매 비용도 저렴해 접근하기 쉬운 악기로, 손, 귀, 입 등 다양한 신체 부위를 통한 뇌 자극으로 치매 예방 및 우울감 개선 등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성취감도 느끼게 해줘 어르신들의 배움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군 번암면 지사협, 어르신 비상연락망 제작

장수군 번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차주영·박장옥)는 지난 14일 홀로 사시는 취약계층 어르신 10세대를 대상으로 '비상연락망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번암면 지사협 특화사업의 일환인 '비상연락망 사업'은 응급상황 발생 시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의 가족 등을 찾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사전 비상연락망 제공으로 관내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비상연락망을 통해 관내 경찰서, 소방서, 마을 이장 연락처를 제공하고 가족, 지인 등을 미리 기재해 응급 시 관계기관이나 이웃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연락망을 가동할 수 있다. 박장옥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의 구성원이 돼 더불어 살기 좋은 번암면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농협 김제시지부, 범농협 농촌일손돕기 실시

농협김제시지부(지부장 조원석)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16일 김제 백구농협 육묘장에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백구농협(조합장 장승환), 농협생명전북총국(총국장 지광수), 농협사료 전북지사(지사장 홍의주) 등 범농협 임직원 20여명이 함께 육묘 파종과 녹화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백구농협은 4월부터 모내기 때 필요한 어린모를 육묘해 관내 농민들에게 공급하며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조원석 김제시지부장은 "이번 일손돕기가 조금이나마 농협 및 농가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영농지원 활동으로 희망이 넘치고 행복한 농촌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군청 역도팀, 참가선수 전원 메달

제2회 대한역도연맹회장배 경기서 은메달 4개·동메달 2개 획득



진안군청 역도팀은 5월 10일~17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서 열린 제2회 대한역도연맹회장배 전국역도경기 대회에서 은메달 4개·동메달 2개를 확보하며 팀 내 출전 선수 전원 메달 획득이라는 영광을 거뒀다. 16일 군에 따르면 △김정민 선수(73kg)는 인상(134kg) 4위, 용상(173kg) 2위, 합계(307kg) 2위를 차지하며 은메달 2개 △최희남 선수(81kg)는 인상(143kg) 2위, 용상(173kg) 3위, 합계(316kg) 2위로 은메달 2개·동메달 1개 △최지호 선수(81kg)는 인상(142kg) 3위, 용상(165kg) 4위, 합계(307kg) 4위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는 올 초부터 출전하는 대회마다 입상한 것으로 진안 역도의 힘을 증명했다. 특히 최지호 선수는 73kg급에서 81kg급으로 체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지속적인 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 훈련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오랜만에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역도팀은 오는 6월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열리는 제96회 전국남자 역도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최병찬 진안군청 역도팀 감독은 "앞으로 있는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역도팀은 평소 예진안흥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및 전북인삼농협 후원으로 진안흥삼을 꾸준히 섭취하며, 건강과 체력관리를 함으로써 진안흥삼을 전국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좋은 결과로 진안군을 빛내주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춘향 선발대회 수상자들, 남원시 홍보대사 위촉

남원시는 16일, 제94회 춘향제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 수상자 8명을 시 홍보대사로 위촉해 앞으로 3년간 국내외 문화, 관광, 축제, 박람회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해 남원을 적극 알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국제 대회로 바뀌어 치러진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에는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해외 참가자 5명을 포함한 총 32명이 본선에 올랐으며, 진, 선, 미, 정, 숙, 현 외에 글로벌 뮤즈를 새롭게 추가하여 총 8명을 선발하고 수상자들을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이다. 홍보대사 위촉자들은 위촉식에서 "아흔네 번째이자 최초의 글로벌 춘향에 선발되어 영광스럽다며, 남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이에 최경식 시장은 "남원 지역의 자랑이자 대표 민족문화인 춘향의 열을 항상 기억해 주길 바라며, 남원시 홍보대



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사회복지관, 가족 소통향상프로그램 '해피패밀리'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사회복지관(관장 정훈)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소통향상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사회복지관은 지난 4일 조부모와 손녀가 함께하는 감사의 꽃바구니 만드는 활동, 11일 아빠와 미취학 자녀가 함께하는 숲 놀이 활동을 진행했으며, 오는 25일 아빠와 초등저학년 자녀가 함께 민경 생대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 노는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지역복지사업 <해피패밀리>는 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든든한 지원으로 '아빠가됐다', '월별가족전화활동' 등 김제를 대표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이다. 특히, 아빠와 함께하는 월1회 토요일은 아빠와 자녀의 소통을 높이는 활동으로 참여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해피패밀리에 참여하고 있는 한 가족은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자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활동하며 아이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활동이다"라고 전했다. 김제사회복지관 정훈 관장은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을 대



상으로 정기·비정기적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김제시의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해피패밀리'는 월별 가족친화활동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사회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덕진소방서, 정보통신시설 중앙화재안전조사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동일)가 16일 '정보통신시설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시설 중앙화재안전조사'는 화재 시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 대형피해 우려 대상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추진 했다. 소방청,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전주덕진소방서로 이루어진 합동조사반은 국민연금공단ICT센터에 방문해 부지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 했다. 중점 추진사항은 △소방·피난계획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대상물 특성 고려한 현실 적합 여부 △소방·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 실태, 정상작동 여부 확인 △관계인 평가지도 및 안전컨설팅 등이다. 강동일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이번 화재안전조사에서 화재위험관리 평가분석 및 시설별 유지관리 상태확인 등 전반적인 조사분석을 실시 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가 지난 13일 간담회 개최 후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측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박종환 회장은 "농촌의 교육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고 하더라도 어른들의 관심이 살아있고 아이들의 열정이 식지 않는 한 무주군 교육의 미래는 밝다"라며 "회원들의 마음이 인재를 키우는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는 2014년에 구성돼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로, 무주군 홍보 및 귀농·귀촌 정책 설명,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을 수행하며 도시민과 무주를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귀농·귀촌인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보조금 지원 자격과 관련 예산 상황 등을 공유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자치도,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북자치도는 16일 오전 도청 공영장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소통 방법을 알리는 등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연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난 코로나 19 등의 여파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전주기전대학교 신선순 겸임교수가 강사로 나서 열린 강의를 실시했다. 신 교수는 그동안 전북자치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해 왔다. 양수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혈액원, 헌혈유공자의 집 명패 수여 개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원장 강진석)에서는 헌혈자가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6일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헌혈유공자 황욱(헌혈 458회)씨 자택을 방문해 '헌혈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는 행사를 가졌다고 전했다. 명패전달은 대상자들의 요청에 따라 헌혈자 자택이나 헌혈의 집에서 17일까지 전달할 예정이며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지역 대표 1인을 선정하여 지자체와 연계한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혈액원 강진석 원장을 비롯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 위병기 전북일보 수석논설위원(전북혈액원 헌혈홍보위원)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 등이 참여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재훈 기자



김근하 인탑스 대표, 오수면에 천사박스 기탁

자동차 부품 및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주)인탑스의 김근하 대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수면의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해 400만원 상당의 천사박스 100개를 오수면에 기탁했다. 인탑스는 경기도 안성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지점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적극적으 실천하고 있으며, 매년 본사와 지점이 위치한 지역에 천사박스를 기부하며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사박스에는 인탑스의 직원들이 정성껏 모은 라면, 된장, 찹쌀, 샄푸 등 생활필수품이 들어 있다. 이러한 오수면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 활동은 김근하 대표의 부친이자 인탑스 창립자인 김재경 회장의 오수면 오수리 출신 연결로부터 시작됐으며, 이번에는 지난 작년 추석에 이어 기부를 실시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알림

**경주김씨 전북특별자치도
종친회장(김병래) 취임식**

▲일시: 5월 20일(월), 오전 11시
▲장소: 연기(전주시 완산구 어은로 28)